

6월말 쇠빙LNG 15척 가늠, 그러나 걱정되는 DSME의 공격 영업

코멘터리

수주가 계속됩니다. 현대중공업은

- 1) Trafigura로부터 연초 VLGC 2척+2척을 수주했고, 그 옵션 행사로 2척을 추가 수주했습니다. LPG선은 마진이 좋은 배입니다.
- 2) 작년 12년만에 다시 VLCC를 발주한 Kyklades는, 또 현대중공업에 2척을 추가 발주했습니다. 신조선가는 \$85m 안팎입니다.

LNG선: 투기발주, 6월말 쇠빙LNG선 15척 결정

- 1) 러시아 그린필드 Zvezda의 기술 협력 협약 체결을 따내기 위해 BIG3가 경합 중입니다. 6월말 결정 예정인데, 이에 따라 Arctic LNG-2를 건조할 조선사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20여척의 LNG선에 6월말 아마도 LNG선 누적 발주는 35척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 2) 그리스 Minerva는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2척을 투기발주하며, LNG 시장에 첫 진입합니다. 형제의 회사인 Thenamaris도 2011년 LNGc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투기발주도 거셉니다. 그러나...

신조선가가...

- 3) 외신에 따르면 Minerva의 LNG선 2척 발주에서, 애초 삼성중공업가 가장 면밀히 협의 중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낚아채간 것으로 보이며, 신조선가는 또 \$185m 안팎으로 낮은 것으로 전합니다. 동일 보도에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중, \$180m를 하회하는 계약건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LNG 시장은 투기발주 등에 비롯되어 수주가 물려들고 있고, 옆 섹터 컨테이너선까지도 좋아 충분히 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업황인데, 안타깝습니다.

불과 연초에 "작지만 단단하게"라는 대우조선해양의 신년사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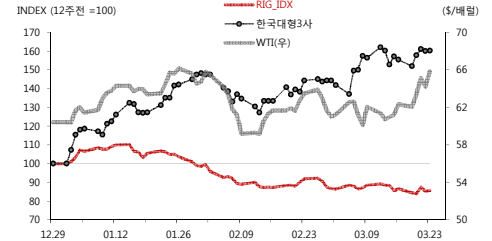
저 기사가 맞다는 전제 하에, 피해를 보는 옆 조선사들의 입장은

LNG선 발주 사이클은 향후 3년 이상을 달릴 기세이기에, LNG 솔לות을 상대적으로 덜 채운 경쟁사가 그 다음 더 좋은 물량을 받을 것이기에 반사 수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IG3 중 한국이 가격을 낮추고 있어, 당장 시장 선가를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결국 LNG선도 신조선가는 오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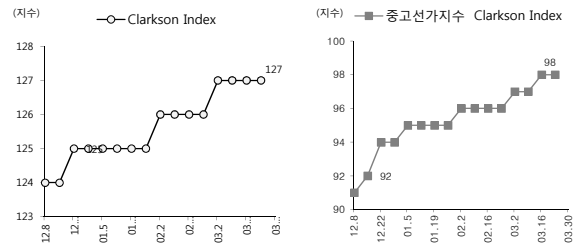
- 4) 중국 Bohai는 VLCC를 \$79.7m에 수주하며 최저가를 갱신했지만, 현대중공업과 심지어 중국 외교교의 VLCC 오퍼가격은 각각 \$89m, \$87m이어서 선가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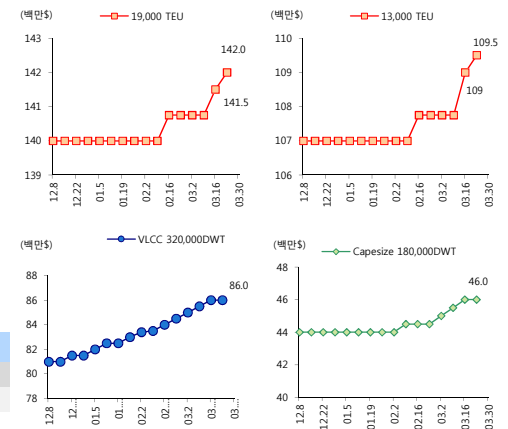
유가, RIG PLAYER, BIG3



신조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포함이지만



컨테이너선 2주 연속 상승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뜨거운 LNG

- ▲ BIG3 러시아 Zvezda 기술 협력 약정 체결 경쟁 중: 6월말에 결론 → 쇠빙 LNG 15척 항방 확인
- ▲ 러시아 Minerva,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2척 투기 발주하며, LNG선 시장 첫 진입

선가..

- ▲ 중국에서 VLCC \$79.7m 최저가 받았지만, 현대중공업의 오퍼가격은 \$89m
- ▲ DSME가 Minerva의 LNG선 2척 SHI를 제쳤는데 선가 \$185m, 최근 수주에서 \$180m 하회도 있다는 보도

현대중공업의 수주

- ▲ Trafigura, VLGC 2척 추가 수주
- ▲ Kyklades Maritime, VLCC 2척 수주

ASP & 실적관련(국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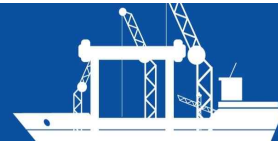
△ PFLNG2, 84% 기성

- 삼성중공업이 제작 중인 PFLNG dua는 2020년 2월 가동을 목표로 건조 중이며, 현재 기성 84%에 도달
- 올해는 module installation, 2019년에는 integration과 commissioning에 집중해,
- offshore commissioning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

(17년09월) ▲ 삼성중공업에 HOLD 중인 Petronas의 PFLNG Dua, 작업 재개!

(16년5월2주) > Petronas의 PFLNG2 Hull, 삼성중공업에서 진수

(16년3월1주) Petronas Restructuring 계획 발표에서, PFLNG2호선 작업 정지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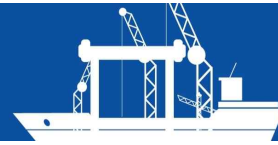


▷ KOTC가 중국 Bohai에 발주한 VLCC는 새로운 저가 형성: 그러나 현대중공업 \$89m 오퍼

- KOTC가 중국 Bohai에 발주한 318k 탱커 신조선가는 \$79.7m으로 최저가 신기록 경신
- 중국의 가장 최근 VLCC 수주는 작년 5월에 중국 CSET가 대련조선과 대련 Cosco KHI에 발주한 6척으로, 당시 신조선가는 \$80m
-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 조선사들의 VLCC 신조선가는 \$80m 초반: Scrubber 등의 \$1.5m~\$2.0m 포함 여부 불확실
- 최근 한국 현대중공업은 \$89m, 중국 외교교 조선사는 \$87m을 제시 중이어서, 상반된 분위기
- Bohai는 5년전 마지막으로 VLCC를 인도한 바 있으며, 낮은 가격 무기로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잔고를 채우는 수주로 해석됨
- KOTC의 이전 마지막 VLCC는 10년전 DSME에 \$175m
- >> 중간 중간 배고픈 조선사들의 저가 공격이 들어오지만,
- >> 현대중공업이 2020년 인도물 VLCC의 신조선가를 \$89m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 대우조선해양, Songa와의 \$373m 소송에서 패소

- 대우조선해양은 Cat-D 반잠수식 시추선 2기(Songa Equinox, Songa Endurance) 건조에서 대규모 지연과 cost-overrun이 발생했는데
- 이에 관련해 설계상의 오류와 생략 때문이라며 Songa Offshore에 \$373m 배상 및 \$44m의 LD(liquidated damages) 환입 소송을 감: Songa도 \$65.8m 소송을 DSME에 감
- 판사는 한국 기업들 특유의 매우 계층적인 구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서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공기 연장의 주유일 수 있다고 설명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 Seadrill, Repsol에 드릴십 1개 유정 용선 계약

- 가봉의 필드에 1개 유정 드릴링 계약을 \$6.4m에 체결

△ Barossa FPSO 진척: 곧 FEED 2사 결정, 삼성중공업 4개 경합사 중 한 곳

- ConocoPhillips는 Nopsema(The National Offshore Safety &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로부터 8주만에, 지난주 화요일 승인을 받아냄
- 이번 승인 다음에도 추가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진척으로 볼 수 있음
- Barossa는 FPSO를 도입해,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고, 가스는 ConocoPhillips의 Darwin LNG 터미널로 파이프라인 운반: 3.7MTPA 가스 및 1.5M barrels
- 2023년 가동 예정으로, 곧 FEED 2사를 결정해 기본설계를 시작: SBM Offshore, Modec, Technip FMC, 삼성중공업이 입찰 중
>> 이전 보도에 없던 삼성중공업이 들어와있습니다.

(01월5주) ▷ ConocoPhillips의 Barossa FEED 2사 곧 선정

- 호주에서 2013년 이후 첫 standalone offshore 프로젝트가 될 Barossa의 FEED 2사를 곧 선정
- 7개사 중 SBM, Modec, Saipem, TechnipFMC의 4개사를 추렸고, 곧 2개사를 선정해, FEED를 2분기부터 시작해 2018년말까지 완료하고, 2019년 3분기 FID 예정
- SBM과 Modec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양사 모두 FPSO Lease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회사: 최종 결과는 아직 불투명
- 4만톤 탑사이드의 FPSO는 가스와 condensate를 분리해, 가스는 Darwin LNG 플랜트로 옮겨 처리할 계획: 디자인을 간소화함으로써 10억\$의 비용을 절감
- 향후 어느 야드를 통해 신조를 마칠지가 관건

(01월1주) △ Barossa FPSO에 4개 숏리스트 곧 선정: 2Q18 FEED 시작

(09월4주) △ ConocoPhillips, 북호주 Caldita-Barossa FEED 2사 선정 한창

(07월2주) △ Caldita-Barossa FEED 입찰 7월 → 2018년초 선정

(16년03월) △ 호주의 대형 가스 프로젝트들 현황

▶ LNG

▽ Minerva LNG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음: 그러나 DSME에 싸게 견조

- 그리스 Minerva는 2021년 인도물로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2척을 계약
- Minerva의 형제인 Dinos Martinos가 운영하는 Thenamaris도 2011년 3척의 160k CBM LNG선을 투기발주하며 시장 진입한 바 있음
-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시장에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몇몇 LNG선 계약은 \$180m를 하회하기도 한다고, Tradewinds가 보도
- 이번 수주는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으로는 \$185m
- Minerva는 최근까지 삼성중공업과 면밀히 협의 중이었는데, 결국 대우조선해양에 채간것으로 짐작됨
>> 개탄스럽습니다. 20여척이 쏟아지고 있는 LNG선 시장에서 저가 수주라니요.
>> 회사별로 저가수주의 기준은 다르고, 연속건조, 원가구조가 다르고 외부 분석에 한계는 있지만
>>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회사의 "작지만 단단하게..."를 믿어왔지만, 과거 늘 140억\$ 안팎을 수주하던 DSME의 망령이 떠오릅니다.

(03월3주) ▲ Minerva Marine도 LNG 시장에 투자 관심

- Andreas Martinos 가문의 Minerva Marine은 LNG선 시장에 투자를 고민 중이며, 조선사들과 berth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함
- 몇개 조선사와 협의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중공업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짐
- Tradewinds의 질의에서는 현재로서는 LNG 시장을 보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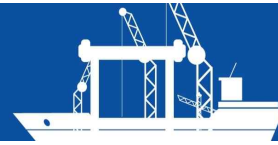
△ 한국 BIG3, Zvezda 기술 제휴 경쟁 중: 6월말 쇄빙LNG선 15척 주인이 정해지는 셈

- 한국 조선사들은 러시아 Zvezda와 "기술 협력 협정"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 최종적으로 자국에서 LNG선 건조가 목표
- 결론은 6월말에 날 전망
- 신생 Zvezda 조선은, 러시아 Rosneft로부터 수주한 셔틀탱커를 2023년부터 연속 인도 예정
- 또한 Artic LNG-2의 쇄빙LNG선 15척의 건조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램
- 최근 러시아 당국도 이 복잡한 선박을 당장 자국에서 건조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임
- 대신, 한국 조선의 도움을 바탕으로 노하우/숙련도를 높여 탱커 건조능력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
- Zvezda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LNG 추진 아프라막스 탱커를 발주해, 올해 3분기부터 인도 예정이며,
- 작년 9월에는 Rosneft와 Sovcomflot이 함께 5척의 LNG 추진 아프라막스 탱커를 Zvezda에 발주한 상황
>> 6월말의 BIG3 중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협정을 따낸 곳이, 쇄빙 LNG선 15척을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사 지분 49%에서 51%로 올리며, Damen에 매각 허용

-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Damen에 지분 51%를 290억원(\$25.9m)에 매각 예정이었지만
- 루마니아 정부의 반대로 막혔던 상황: 정부는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지분율을 51%로 끌어올림
- DHMI는 1997년 대우조선해양과 2 Mai Mangalia SY 합작사로 설립되어, 127척의 탱커, 컨테이너선을 건조해왔지만
- 최근 5년간 \$800m의 적자를 기록해옴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③Korea Line→Hyundai HI (Ulsan), TK(300k) 2척

(03월3주 플래쉬) △ 대한해운, 현대중공업에 VLCC 2척 본계약 체결

- 익히 알려진대로 GS칼텍스와의 COA를 기반으로,

- VLCC 2척을 총 \$173m(척당 \$86.5m)에 계약

>> VLCC 신조선가가 \$80m에서 클락스 기준으로 \$85m까지 올랐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86.5m까지 확인되었습니다.

>> 신조선가는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월2주) △ Korea Line, VLCC 투자

- 대한해운은 GS칼텍스와의 COA를 체결: 2019년말부터 총 \$197m 금액

- 작년의 VLCC 2척 발주와 매칭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Trafigura, VLCC 추가 발주

- Trafigura는 1월 현대중공업에 80k CBM 2척을 발주한데 이어,

- 최근 옵션을 행사해 2척을 추가 계약: 2020년 인도, 최근 \$400m의 채권 발행에 성공

- 동선주는 34척의 VLCC를 건조 중: HHI에 8척, 현대삼호중공업에 2척

▲ 현대중공업, Kyklades Maritime, VLCC 2척 수주

- 2017년11월 12년만에 VLCC 2+2척을 발주한 Kyklades가, 추가로

- 2척의 319k DWT VLCC를 현대중공업과 지난달 계약한 것으로 업데이트: 옵션 여부는 불투명

- 2019년말~2020년초 인도(1~4호선은 2019년 4월~9월 인도)로, 신조선가는 \$85m를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 2017년의 4척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환, Tier III 스펙

- 한편 성동조선에 발주했던 아프라막스 5척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로 건조가 어려울 것으로 봄

(17년12월) ▲ Kyklades → 현대중공업, VLCC 2+2, 12년만의 VLCC 시장 재진입

- 2005년 Maran에 VLCC를 매각하고 시장에서 빠졌던 Kyklades가 VLCC를 최대 4척 투자하며 시장에 다시 진입

- 현대중공업에 2019년말 인도로 319k 탱커 확정 2척 + 옵션 2척

- 최근 16.09~17.06 7척의 탱커를 매각하며 \$180m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번 신조선가는 \$81.5m로 전해짐

(07월4주) △ 성동조선, Kyklades RG 발급

- 그리스 Kyklades의 아프라막스 탱커 5척+2척, \$280m

- 수주는 4월에 성사되었으나 RG 발급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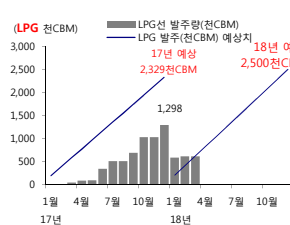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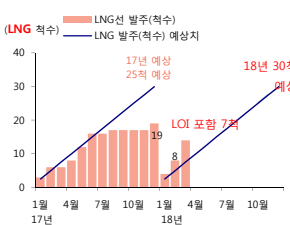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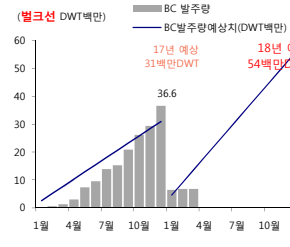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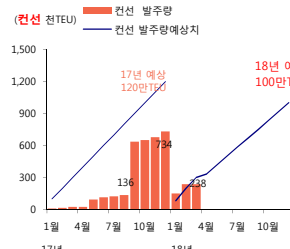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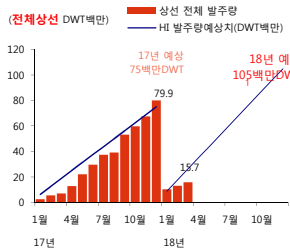
- 18개월만의 수주 재개: 2018년 하반기 인도

△ Minerva → DSME, LNG선 2척, 최초 시장 진입, 그러나 선가가...

- 위의 LNG 섹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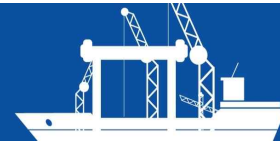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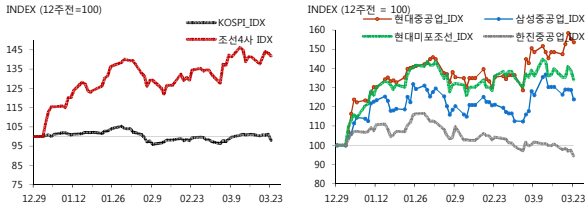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8년02월4주								
BIG6	HHIC-Phil (Subic SV)	17.12.15	유럽	Pantheon Tankers	TK	114k DWT	2019	2
	Daewoo (DSME)	18.3.2	Unknown	Unknown	TK	300k DWT	2020	2
		18.2.28	Unknown	Unknown	TK	300k DWT	2020	3
		18.2.26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0	2
한국	Korea Shipyard	18.2.12	한국	S Korea Fisheries	OTHERS		2019	1
중국	Jiangsu New YZJ	17.12.1	유럽	LMZ Shipping	BULK	82k DWT	2019	1
	Jinling Shipyard	18.2.28	중국	Nanjing Yangyang	LPG	7k cu.m.	2020	1
		18.2.26	중국	Shanghai Ansheng	PCTC	2k Cars	2019	1
일본	JMU Maizuru Shipyard	18.1.1	아시아	Wisdom Marine Group	BULK	82k DWT	2020	2
18년03월1주								
중국	Taizhou Kouan SB	18.2.8	중국	CSSC Offshore Eng	해양설치		2020	1
18년03월2주								
BIG6	Samsung HI	18.3.12	유럽	GasLog	LNG	180k cu.m.	2020	1
		18.3.9	Unknown	Unknown	LNG	180k cu.m.	2020	1
	Daewoo (DSME)	18.3.14	Unknown	Unknown	LNG	173k cu.m.	2021	2
	Hyundai HI (Ulsan)	18.3.5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0	2
중국	Beihai Shipyard	17.12.1	중국	COSCOCS(GZ) RoRo	PCTC	2k Cars	2020	2
	Jiangsu New YZJ	18.1.1	유럽	LMZ Shipping	BULK	82k DWT	2020	1
	AVIC Dingheng SB	18.2.1	유럽	GEFO	PTK	4k DWT	2020~2021	6
18년03월3주								
BIG6	Hyundai HI (Ulsan)	18.3.15	한국	Korea Line	TK	300k DWT	2019~2020	2
중국	Bohai Shipbld.	18.3.15	중동	Kuwait Oil Tanker	TK	318k DWT	2020	1
중국	PaxOcean Zhuhai	17.12.19	유럽	Stena Oil	TK	6k DWT	2019	1
	AVIC Dingheng SB	18.1.25	유럽	GEFO	PTK	4k DWT	2020	4
	Jiangsu Dajin HI	18.3.15	러시아/CIS	Amurskaya Neftebaza	PTK	5k DWT	2019	1
	CMHI (Jiangsu)	18.3.16	북미	Sunstone Ships Inc	CRUISE	0k Berths	2020	1
	GSJ Nansha	18.3.16	Unknown	Aurora Tankers	PTK	55k DWT	2021	4
	Saiki Hvy. Ind.	18.3.21	일본	Far East Shpg. & Trg	BULK	37k DWT	2019~2020	2
	Murakami Hide	17.12.1	Unknown	Murakami Hide	LPG	5k cu.m.	2018	1
	JMU Ariake Shipyard	18.3.21	일본	JX Ocean	TK	300k DWT	202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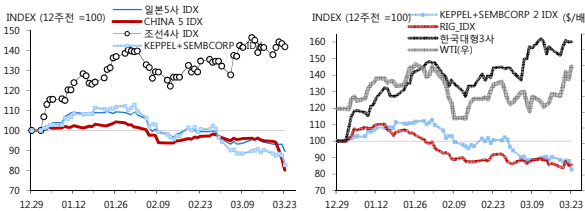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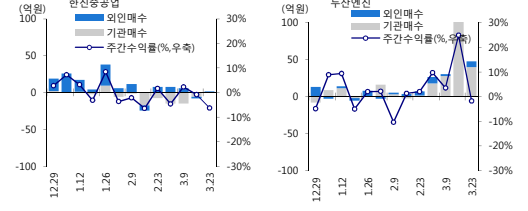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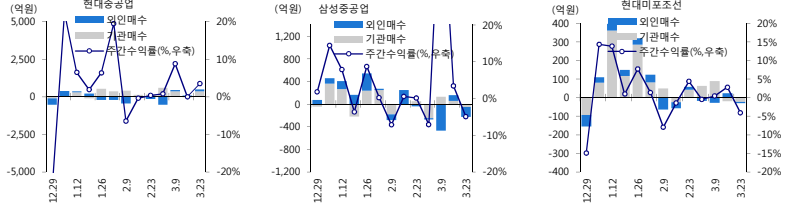


▶ 조선업 한중일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동 보도

▷ 日, 선화주 공동부담 스크러버 장착...한국 "아직 초기단계"

<http://lnr.li/ZJ7wg>

일본 3대선사인 MOL(Mitsui O.S.K Lines)이 오는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자국 최대 청유사이자 화주인 JXTG그룹과 공동대응하기로 최대 30척 이상의 VLCC선단에 대해 선박 연료로 고유황(High Sulfur Heavy Oil) 중유를 사용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환경규제에 대응해 대폭 줄일 수 있는 ... 스크러버(sulphur)를 장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

한국은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선사들이 발주하는 선박에 잇따라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화주 간 협업사례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함

MOL은 최대 30척이상의 VLCC를 보유중이며 이들 선박의 연료로 고유황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 운항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현재 3.5%에서 0.5%로 대폭 줄일 수 있는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

MOL은 앞으로 VLCC를 발주하는데 있어서도 스크러버를 장착하기로 결정

스크러버 장착에 50억~100억원의 비용이 쓰이고, 운항 중인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경우 10개월 가량 소요

△ 조선3사, 태국에서 발주할 LNG해양생산설비 파내기 위해 '눈독'

<http://lnr.li/EkWWU>

LNG월드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엔지니어링회사 플루어가 태국 인근 바다에 FSRU(부유식 LNG저장-재기화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시작

육상에 설치하는 LNG터미널과 비교해 새로 지어야 하는 부대설비가 적고 건조기간도 짧아 빠르고 저렴하게 LNG를 수입할 수 있다는 강점

플루어가 FSRU 관련 기본설계를 올해 중순까지 마칠 것으로 LNG월드뉴스는 전망

태국 전력공사인 EGAT와 태국 국영석유회사 PTT는 올해 2월 FSRU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양해각서

EGAT와 PTT는 이 사업에 모두 12억 달러를 들이며 2025년 상업운전하겠다는 계획

▲ 현대삼호중, 황산화물 저감장치 장착 VLCC 인도..."세계 최초"

<http://lnr.li/5S5dn>

세계 최초로 황산화물 가스세정기(스크러버)를 장착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건조하고 13일 명명식과 인도서명식을 개최

그리스 '알미'가 2016년 8월 발주한 2척 중 첫 호선: 선박에 설치된 가스세정기는 높이 11m, 폭 8.3m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상선 9만 2000여척 가운데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0년 선령 20년 이상이 되는 선박은 절반 가량인 4만6000여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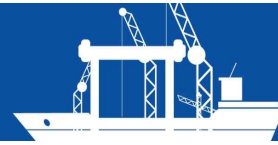
조선업계는 이 중 실제 교체가 예상되는 선박이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8000~9000여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

△ CMA CGM, 지난해 영업익 15억7500만弗...전년비 54배 ↑

<http://lnr.li/VwGb0>

CMA CGM이 APL 인수 효과와 오션얼라이언스 출범에 따른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괄목할만한 실적 성장

지난해 영업이익은 15억7500만달러(약 1조6800억원), 순이익은 7억100만달러(약 7500억원)를 각각 기록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 사우디 합작조선소 공사 착수

<http://lnr.li/46Q99>

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아랍코, 바흐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람프렐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 합작조선소가 부지확보를 위한 준설공사를 시작
사우디 조선소 건립은 정 부사장의 역할이 막중해 일명 '정기선 프로젝트'라고 불림. 이 합작조선소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5조원 규모로 사우디에 들어서는 첫 대규모 조선소
조선소는 약 500만㎡(150만평) 규모로 사우디 최대 규모가 될 합작 조선소는 사우디 동부 주베일 항 인근 라스 알헤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입지
: 일반 상선과 해양플랜트 건조는 물론 선박수리도

맥도날드 람프렐 CEO는 "사우디 합작조선소 건립을 추진하는 조인트벤처(JV)의 사명이 'IMIC(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company)'로 확정된 후 ...

... 조선소 건립 기금을 확보하는 등 합작조선소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합작조선소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해양설비 4척, VLCC(초대형원유운반선)를 비롯해 상선 4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고, ...

... 선종별로 260여종의 상선-해양 관련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업계 관계자는 "합작조선소는 상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 기준으로 50척 이상의 수주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며 ...

... "조선소를 통해 선박 건조 외에도 선박 수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정기선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 중인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선박 수리 등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사업을 추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하이투자증권 M&A 무기한 연기 우려...DGB금융지주 '좌불안석'

<http://lnr.li/Diili>

이달 말로 예정됐던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M&A(인수 합병)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

DGB금융지주는 오는 29일 열리는 하이투자증권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정관 변경 및 이사회 교체를 실시하고 인수 잔금을 납입하려던 일정을 연기

법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은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박 회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DGB금융지주도 최근 당국이 서류 보완을 요청한 진의가 심사 일정을 연기하려는 명분으로 판단해 제출하지 못한 것

▷ DGB금융 박인규 회장, 대구은행장 사임 표명

<http://lnr.li/BgsUH>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등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나빠진 여론 등이 직접적인 배경

△ 현대중공업,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 107.8%

<http://lnr.li/PSRAG>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결과, 발행예정주식 1250만주 가운데 1348만910주가 청약돼 청약률 107.8%를 기록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우리사주 배정 주식 '완판'

<http://lnr.li/kbSj3>

삼성중공업은 12일~15일, 유상증자 신주 2억4000만주 가운데 발행 주식수의 20%인 4800만주의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우리사주 총 조합원 1만797명의 98%인 1만563명이 신청

청약 신청 주식은 조합에 배정된 주식수(4800만주)를 25% 초과한 6004만주로 집계

삼성중공업은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의 초과청약은 임직원들의 실적 개선 의지와 조선업 상황회복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것"이라며 ...

... "구주주 청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고 설명

오는 4월 9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하며 4월 12일 우리사주조합 청약과 4월 12~13일 구주주 청약이 이뤄지고, ...

...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4월 17~18일에 실권주 일반공모를 거쳐 5월 4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

△ 주주총회에서, "삼성중 내년엔 흑자전환" 남준우의 자신감

<http://lnr.li/WTEME>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제 성장에 따른 해상 물동량 증가로 선박 발주가 점차 늘고 오일 메이저들의 설비 투자도 활발해 조선해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

... "발주 시장 회복에 앞서 액화천연가스(LNG)선, 해양플랜트 등 삼성중공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활동에 매진해" ...

... "내년부터는 매출이 턱어라운드하고 흑자 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다음달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마무리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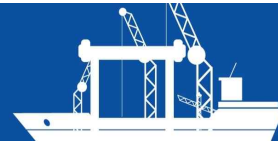
: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에 선제로 대비하고 안정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꼭 성공해야 함

"증자가 마무리되면 부채비율이 140%에서 90%대로 낮아지고 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도 30%에서 20%로 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

△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391억원 출자

<http://lnr.li/ecAqi>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중공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391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22일 공시



▶ 대우조선해양 보도

▼ 공들인 '소난골', 또 다시 막힌 출구전략

<http://lnr.li/K7UJG>

2013년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난골로부터 오랜 기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1조원이 넘는 드릴십 수주 총 거래금액 12억4000만달러 중 20%에 해당하는 2억5000만달러를 계약 당시 선수금: 나머지 9억9000만달러는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으로 수령기로 합의 2016년 6월과 7월에 드릴십 2기를 각각 인도할 예정 하지만 국가 채무를 떠안게 된 소난골이 유가 하락 등을 이유로 수년째 드릴십 인도 일정을 늦추면서 무한 인도 연기 중이었지만 지난해 3월 지지부진했던 드릴십 운영업체 및 용선처 선정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소난골 프로젝트가 마침내 해결되는 듯 하지만 앙골라 정권 교체로 소난골 경영진이 새롭게 바뀌면서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 노력1) 건조대금 수령을 위해 2016년 9월 특수목적회사(SPV) 설립 카드 : 드릴십 잔금 9억9000만달러 중 8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0%는 SPV 주식을 취득한 뒤 배당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전략 노력2)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채무조정 전문회사인 밀스타인(Millstein)의 힘을 빌려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역부족 노력3) 지난해 초 소난골에 추가 회유카드를 제시: 소난골이 원유 판매권 등을 담보로 내놓으면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이마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소난골이 드릴십 1기당 1억달러씩 깎아달라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은 결렬 노력4)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및 3조원의 자금수혈로 다시 한 번 회생 기회를 잡은 대우조선해양은 소난골 설득 작업에 속도 최근5) 소난골은 지난해 드릴십 운영업체 및 용선처 선정 작업에 돌입 : 미국 엑소모빌(Exxon Mobil), 셰브론(Chevron) 등 5곳의 정유업체가 드릴십 운영업체 후보로 거론, 용선처로는 이탈리아 석유기업인 에니(Eni S.p.A.)가 물망 상황이 진전되자 이를 근거로 시장에서 9월께 드릴십 인도가 완료될 것이라 관측 그러나) 올초 소난골 수장이 교체되면서 원점 : 지난해 8월 앙골라 독재정권이 38년만에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 영향으로 국영회사인 소난골의 경영진도 대거 교체 관계자는 "새로 바뀐 소난골의 경영진이 그간의 협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 "영업부서 임원들이 앙골라에 가서 소난골 경영진과 첫 상견례를 잘 마친 만큼 빠른 시일 내 드릴십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

▽ 대우조선, '1조원 손실' 송가 프로젝트 중재 최종 패소

<http://lnr.li/PDdeK>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적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지만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1조원 가량의 손실 회사 측은 송가측의 기본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3억7270만달러(약 4160억원)의 손해배상을 2015년 7월 청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대우조선은 같은해 9월 항소를 했지만 이번 판결로 최종 패소 대우조선 측은 이미 손실을 2015~2016년에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손실은 없다고 설명

▶ 중소형 조선사

▷ 9000명 직원에 세계 8위였던 성동조선 '법정관리' 신청

<http://lnr.li/SCMmP>

2007년 말 수주잔량 기준 세계 조선업체 순위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이어 8위 이후 수출입은행 등은 8년 동안 약 3조2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지만 결국 법정관리 항로 조선업 호황 시기 9000여명(협력업체 포함)에 달하던 직원수는 현재 약 1240명까지 줄어든 상태

▽ STX조선 노조 500명 감축 반발, 26일부터 총파업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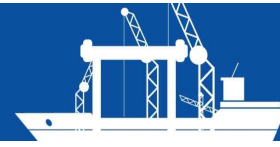
<http://lnr.li/8pCra>

노조 측이 대규모 인원 감축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6일부터 총파업 돌입 예고로 강하게 반발 지난 19일부터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목표 인원에 못 미치면 권고사직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고정비 40% 감축과 생산직 중심의 인력 축소를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 생산직의 75%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 STX조선해양 생산직 근로자는 693명으로 75% 인력 감축 대상은 520명 | 한때 생산직 근로자가 1047명 남은 인력에 대해서도 자녀 학자금과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 중단, 상여금 300%(전체 상여금 800%) 삭감 등을 발표 금속노조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해야하는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 "22일과 23일 오후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26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 생산직 근로자 693명 중 178명만 그대로 남겨 두고 나머지는 아웃소싱(비정규직 고용)이나 희망퇴직을 받고 일부는 권고사직까지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

▽ 6000명 집할 때 생산직은 500명 퇴직 'STX조선...칼 빼든 까닭'

<http://lnr.li/m8v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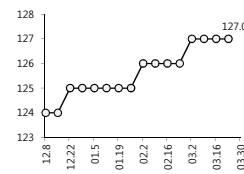
STX조선해양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생산직 근로자들은 총 489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 같은 기간 사무기술직 근로자는 1829명, 사내협력사는 3690명(1월 29일 기준), 임원은 33명이 퇴직해 숫자적으로 대조 생산직의 대부분이 근속연수 10~20년 차인 1~2급 근로자로 구성돼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짐 선제 운반 시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거나 신호를 주고 받는 간접지원직이 많아 협력업체 인원으로 대체가 불가피하다는 방침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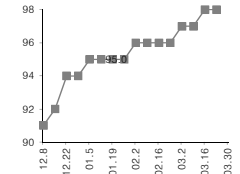
▶ 신조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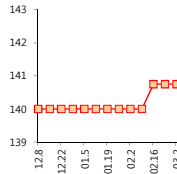
▶ 중고선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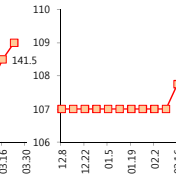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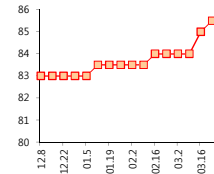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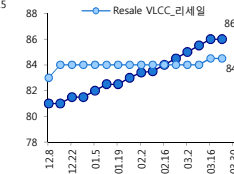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u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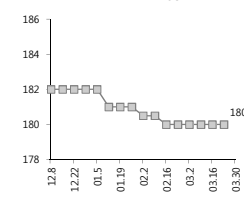
▶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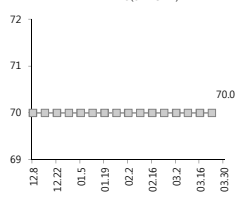
▶ LNG선 - 신조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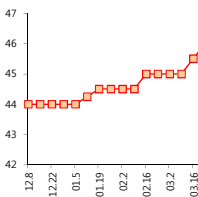
▶ LPG선 - 신조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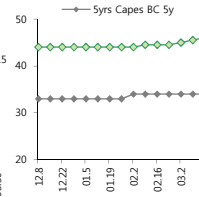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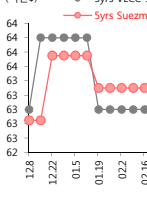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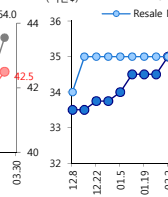
▶ MR탱커 신조vs리세일

(백만\$)



▶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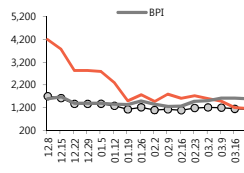
(백만\$)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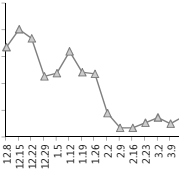
▶ 벌크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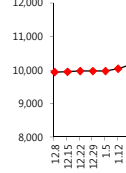
▶ 중국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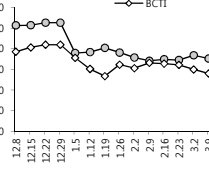
▶ 중국연해선적화물운임지수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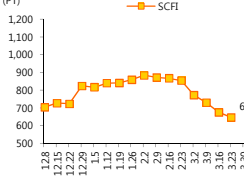
▶ 탱커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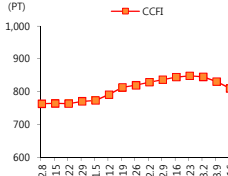
▶ 컨선

(PT)



▶ 컨선 지료들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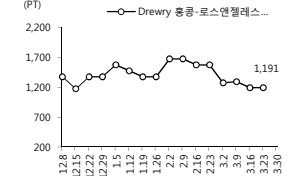
▶ 컨선 지료들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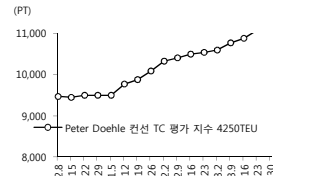
▶ 컨선 지료들

(PT)



▶ 컨선 지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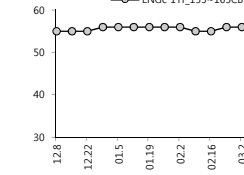
(PT)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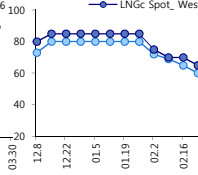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천\$/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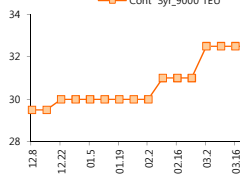
▶ LNG선 SPOT

(천\$/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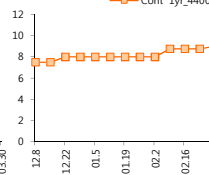
▶ 컨선

(천\$/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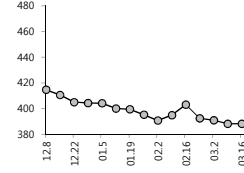
▶ 컨선

(천\$/DAY)



▶ 드릴십

(천\$/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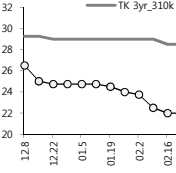
▶ 벌크선 - 케이프

(천\$/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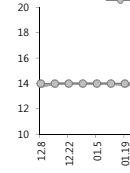
▶ 탱커 - VLCC

(천\$/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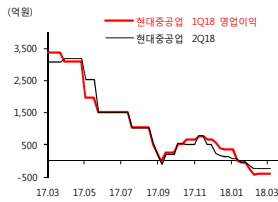
▶ 탱커 - MR

(천\$/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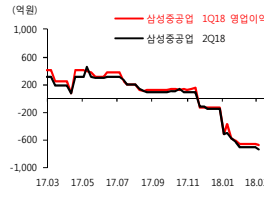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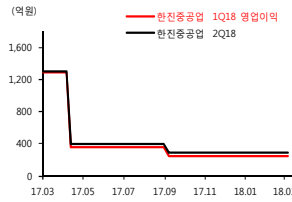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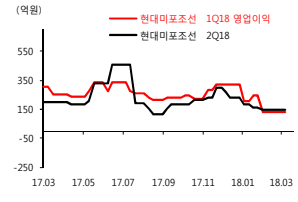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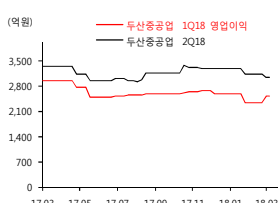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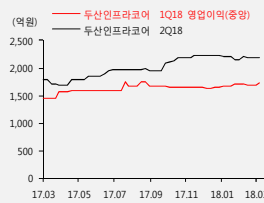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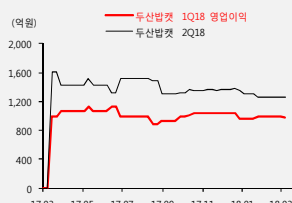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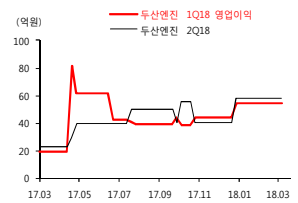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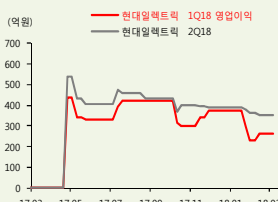
▶두산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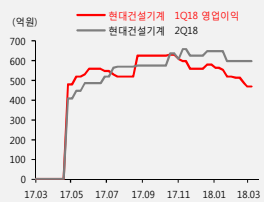
▶두산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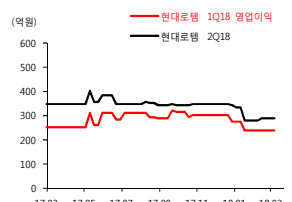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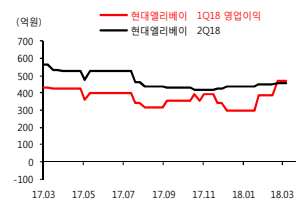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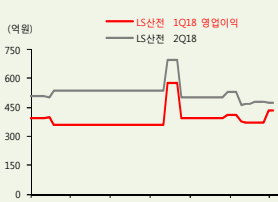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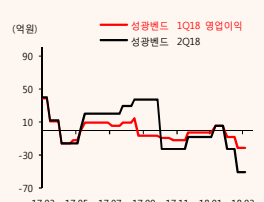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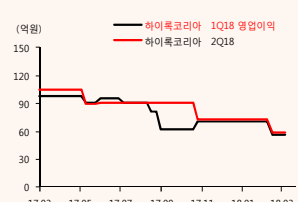
▶성광벤드



▶태광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2.24	18.03.03	18.03.10	18.03.17	18.03.23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2,489	2,873	2,222	477	-1,110	-1,046	-1,591	-1,591	-1,365	적전	적지	-108.0	147,500
	삼성중공업	200	163	-280	-358	-464	-464	-440	-455	-483	적지	적지	-16.6	8,020
	현대미포조선	3,228	3,941	4,141	3,474	2,176	2,347	2,347	2,416	2,416	-30%	11%	43.7	105,500
	한진중공업	398	185	29	-74	-74	-198	-509	-509	-509	적지	적지	-6.1	3,125
두산	두산중공업	1,635	1,474	1,420	1,420	1,240	1,240	1,240	1,227	1,227	-14%	-1%	12.2	15,000
	두산인프라코어	1,078	1,168	1,155	1,169	1,224	1,253	1,253	1,253	1,249	7%	2%	7.3	9,160
	두산연진	115	144	104	72	-101	-122	-122	-122	-122	적전	적지	-45.8	5,600
기계	현대건설기계	39,385	40,110	15,531	15,850	15,368	15,369	15,351	15,128	15,128	-5%	-3%	11.4	172,500
	현대일렉트릭	32,570	29,740	10,704	10,803	8,466	7,850	7,642	7,642	7,642	-31%	-26%	10.0	76,400
	LS산전	4,439	4,661	4,773	4,797	4,671	4,671	4,626	4,581	4,537	-5%	-3%	13.3	60,500
	현대엘리베이터	4,602	4,327	5,217	5,603	5,172	4,351	3,877	3,877	3,839	-31%	-26%	19.9	76,300
방산	현대로템	941	884	841	845	760	757	757	757	757	-10%	0%	19.9	15,100
	한국항공우주	2,488	2,472	1,629	1,474	1,303	1,280	1,280	1,280	1,304	-11%	0%	37.7	49,150
	한화테크윈	2,329	1,899	1,831	1,815	1,383	912	912	912	912	-50%	-34%	31.8	29,050
	LIG넥스원	4,535	4,246	3,873	3,655	2,453	2,466	2,466	2,466	2,466	-33%	1%	19.8	48,900
피팅	성광벤드	106	196	106	64	58	-9	-38	-38	-38	적전	적전	-297.7	11,450
	태광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302	0%	0%	40.2	12,150
	하이록코리아	1,726	1,800	1,912	1,912	1,767	1,413	1,413	1,413	1,413	-26%	-20%	15.9	22,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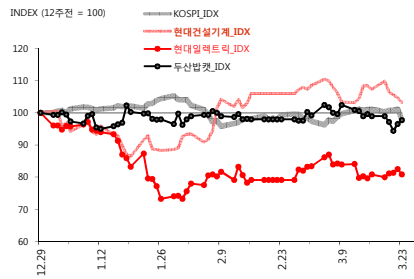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02.24	18.03.03	18.03.10	18.03.17	18.03.23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220,287	230,753	229,279	230,846	241,361	241,361	240,578	240,578	195,472	-1%	1%	0.8
	삼성중공업	18,851	18,924	19,451	19,573	20,494	20,494	20,352	20,321	19,814	-2%	1%	0.4
	현대미포조선	124,086	132,268	132,123	127,187	125,784	126,280	126,280	126,280	126,280	2%	3%	0.8
	한진중공업	9,150	8,325	8,147	6,782	6,675	6,675	6,105	6,105	6,105	-8%	2%	0.5
두산	두산중공업	31,486	30,180	30,258	30,258	29,665	29,190	29,190	28,884	28,884	4%	5%	0.5
	두산인프라코어	11,717	11,848	11,655	11,528	10,934	10,899	10,899	10,899	10,899	11%	12%	0.8
	두산연진	8,056	7,874	7,893	7,947	7,731	7,612	7,612	7,612	7,612	-2%	1%	0.7
	두산발트	307,183	344,128	128,963	134,960	131,312	131,312	129,371	129,743	131,002	12%	12%	1.3
기계	현대건설기계	275,491	308,032	115,492	112,294	109,511	106,344	106,687	106,687	106,687	7%	10%	0.7
	현대일렉트릭	42,710	43,327	43,613	43,510	43,099	42,954	42,882	42,734	42,734	11%	12%	0.0
	LS산전	39,106	38,176	43,206	43,206	41,080	38,338	36,829	36,829	36,464	11%	13%	2.1
	현대엘리베이터	17,635	17,427	17,452	17,564	16,514	16,526	16,526	16,526	16,526	5%	6%	0.9
방산	현대로템	17,202	17,191	14,389	14,107	13,068	12,950	12,950	12,950	12,988	10%	14%	3.8
	한국항공우주	47,043	45,684	45,506	45,383	43,610	42,105	42,105	42,105	42,105	2%	3%	0.7
	한화테크윈	35,655	33,404	32,603	32,108	29,551	29,179	29,179	29,179	29,179	8%	11%	1.7
	LIG넥스원	16,424	16,380	16,328	16,328	16,219	16,057	15,972	15,972	15,972	0%	2%	0.7
피팅	성광벤드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17,110	2%	0%	0.7
	태광	25,123	25,343	25,343	25,343	25,408	24,832	24,832	24,832	24,832	6%	6%	0.9
	하이록코리아	25,123	25,343	25,343	25,343	25,408	24,832	24,832	24,832	24,832	6%	6%	0.9
	하이록코리아	25,123	25,343	25,343	25,343	25,408	24,832	24,832	24,832	24,832	6%	6%	0.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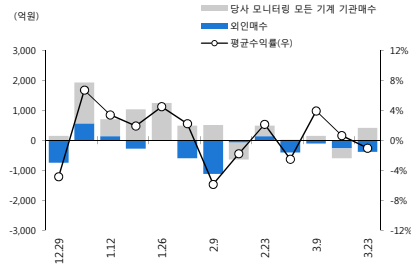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을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두산인프라코어, 밭켓 담보대출 리파이낸싱 추진

<http://lnr.li/XyZPo>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밭켓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5500억원 중 일부를 리파이낸싱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두산밭켓 지분을 담보로 빌린 5500억원 중 3500억원가량을 리파이낸싱하기 위해 ...

... 10여 곳의 금융회사들과 접촉 중: 차입금 만기는 오는 21일

3500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 2000억원은 자체 현금으로 상환할 계획

지자체 담보대출 실행 당시 4만원에 근접했던 두산밭켓 주가가 최근 3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차입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

만기 연장 기간은 2년으로 확정 전망: 중국 굴삭기 판매 증가로 동사의 실적과 신용도가 개선된 덕분에 차입금 상환기간이 지난해보다 1년 더 늘어

현재 담보대출 금리는 연 4% 중반

두산밭켓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건 지난해 3월: 당시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두산밭켓 지분 59.33% 중 28.82%를 맡김

▶ 두산인프라코어, 3500억 규모 사모사채 발행추진

<http://lnr.li/MgCfM>

두산인프라코어가 35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 발행을 추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총 2800억원: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CP는 2682억원 규모

지자체 3분기 기준 약 2500억원의 현금을 보유

현재 두산인프라코어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BBB(안정적)으로 사실상 공모채 발행이 어려운 상태

자산운용사 채권투자 담당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수시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

... "5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만 모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언제든 CP 발행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

△ 두산밭켓, 인도 공장 건설... "코끼리 등에 올라탄다"

<http://lnr.li/3G7IH>

두산밭켓은 인도 첸나이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

모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도 현지 딜러 확보에 나서며 시장 개척을 본격화

두산이 인도에 첫발을 내딛는 이유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 올해 인도 건설기계 시장은 4년 전의 세 배인 3만 대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

인도 시장은 현지 업체인 타타히타치가 주름잡고 있고, 국내 업체 중에선 현대건설기계가 2008년 현지 공장을 설립해 시장을 선점

: 지난해 현대건설기계는 타타히타치(33%)에 이어 업계 2위(17%)의 점유율을 기록

두산은 중·소형 건설장비를 생산하는 두산밭켓을 통해 현지 시장에 '백호 로더' 제품을 먼저 선보일 계획

두산밭켓이 인수를 추진하는 공장 부지 역시 존디어가 2015년까지 백호 로더를 생산하던 곳

△ 박상현 두산밭켓 CFO 자사주 매입

<http://lnr.li/Ylek1>

두산밭켓 재무총괄담당(CFO) 박상현 부사장이 지난 9일 자사주식 3000주를 주당 3만1250원에 장내 매수

관계자는 "회사 가치와 실적에 비해 현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

... "박 부사장은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두산밭켓 경영성과와 수익성 향상 등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힘



원전 vs. ESS, 중전기

△ 현대일렉트릭 300억원 들여 앨라배마 공장 증설

<http://lnr.li/TXBqE>

3천만달러(약 300억원)를 들여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증설 결정: 연말까지 증설 작업을 마칠 계획
당초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이 있었고, 관세를 높이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고려해 관세 절감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음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앨라배마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이번 증설로 80대에서 130대로 늘어남
앞서 지난 13일 동사는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
동사는 공시에서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
...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이 결정됐다"고 전한 바 있음

▼ 美상무부, 현대일렉트릭·호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http://lnr.li/Maxtq>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정금 부과를 통보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
...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
...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
사측은,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
...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를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 영향은 없음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AFA는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으로, ...
... 우리 정부는 미국이 AFA를 남용한다고 보고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 LS산전, '입찰담합'으로 6개월간 국가 입찰에 참여 못해

<http://lnr.li/M7iE>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
... 2018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국가, 공기업 등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22일 밝힘
2017년 연결기준으로 국가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매출 797억 원을 냈다. 전체 매출의 3.4%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에 공고한 고리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
...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

큰 기계들

▽ 두산중공업, 유동성 확보 시급...차환 불가피

<http://lnr.li/YDx1C>

지난 2015년 11월 두산중공업 영국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Doosan Power Systems S.A.)은 3억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
당시 발행한 영구채의 만기는 30년이며 발행 시점으로부터 3년 뒤 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포함
금리는 수출입은행 크레딧이 반영돼 2.5%로 반영됐으며 스텝업(Step-Up)은 130bp로 설정
영구채는 회계기준 상으로 전액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콜옵션 행사 시점이 5년 미만이고 ...
... 스텝업 조건이 붙어 있어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으로는 자본성을 백프로 인정받기 힘들
두산중공업은 오는 11월 영구채 콜옵션 행사 시점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 콜옵션을 거부하면 ...
... 영구채를 보증을 제공했던 수출입은행이 떠안아야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4%와 두산엔진 42.66%가 수출입은행에게 제공되기 때문
그들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영구채 콜옵션 행사는 필수적
두산중공업의 국내 신용등급이 BBB+까지 떨어졌고 신용도가 반등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 원화채권 시장에서 영구채 발행은 쉽지 않을 듯
동사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외화 시장에서 영구채 발행 타진 전망: 다만, 크레딧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의 보증이 필요

▼ 두산중공업, 9500억원 규모 필리핀 발전사업 계약 해지 당해

<http://lnr.li/2suPn>

2016년 10월 수주한 9523억원 규모의 필리핀 레돈도 페닌슐라 발전 시설(Redondo Peninsula Power Generation Facility)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요금(Tariff) 승인 지연으로 ...
... 공사에 대한 NTP(Notice to Proceed)가 계약유효시점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되지 않음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해지를 서면 통지
: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별도 협의를 진행 중

△ 두산중공업, 베트남 풍력발전 시장 진출...3MW급 실증설비 EPC 따낼까?

<http://lnr.li/IR3yB>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박지원 회장이
지난 22일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3메가와트(MW)급 해상 풍력발전 실증단지 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해의 풍력발전 시장에 처음 진출하게 된 두산중공업은 ESS를 포함한 풍력설비를 설계·구매·설치(EPC)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
: 또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유지보수(O&M) 업무도 수행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3MW급 풍력발전 모델을 개발한 데 이어 5.5MW급 해상풍력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도

▽ 한신평, 두산엔진 신용등급 '하향검토' 등록

<http://lnr.li/W559l>

두산엔진은 사업부문(준속법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된 뒤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했는데,
기발행 회사채는 사업부문에 귀속되는데 사업부문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현대로템 자카르타 경전철 출고...아시안게임 수송 말아

<http://lnr.li/B4QNd>

지난 21일 창원공장에서 총 8편성(16량)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중 첫 편성의 출고식
현대로템이 작년 2월 자카르타 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JAKPRO)로부터 3천300만 달러 규모로 수주한 건
오는 8월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자카르타 지역에 신설되는 노선 중 1단계인 선수촌~경기장(총연장 5.8km, 5개 역사) 구간에서 운행
시운전을 거친 뒤 오는 10월까지 모든 편성을 납품할 계획
자카르타 경전철은 차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기존에 철로 만들어진 열차보다 무게가 줄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력소모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
현대로템은 2006년 부산~김해 경전철 50량을 시작으로 ...
... 인천2호선 72량(2009년), 우이신설 경전철 36량(2011년), 김포경전철 46량(2013년), 자카르타 경전철 16량(2017년) 등을 수주하며 경전철 사업을 확대

△ 현대로템, 차륜형장갑차 초도양산 물량 납품 완료

<http://lnr.li/X2Pbi>

지난 2016년 12월 250억원에 수주한 차륜형장갑차 초도양산 물량을 약 1년 3개월 만에 육군에 최종 납품 완료
차륜형장갑차는 6x6 기동형 K806과 8x8 보병전투용 K808 두 가지 모델로, 부품 종류 기준 95% 이상의 국산 부품이 사용
최고속도 100km에 철갑탄 방호 장갑 및 대인지뢰 방호 능력을 갖춰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
현대로템은 지난 2012년 12월 차륜형장갑차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해 2016년 5월 개발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50억원 규모의 초도양산분을 수주
또 작년 12월에는 2차 양산분까지 수주해 안정적인 양산체계를 갖춘

작은 기계들

△ 세진중공업, LPG 탱크 200척 돌파...2019년부터 매출 고성장

<http://lnr.li/NvVG6>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7척을 제작
2016년 한해 36척으로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선박 제조 물량이 줄어든 지난해에도 24척을 제조
올해 상반기에도 10척의 LPG 탱크를 만들고 있으며, 2019년부터 다시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세진중공업은 LPG선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LPG 탱크를 전량 공급
LPG 탱크는 액화 프로판, 액화 부탄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배의 선내에 설치하는 저장 용기로 ...
... 비등점 -42℃를 견딜 수 있는 용접과 보온작업이 필수적인데 세진중공업은 동종업계 유일하게 자체 보온삽 등을 보유

△ 한국카본, 베트남에 해외 첫 생산거점 마련...내년부터 양산체제

<http://lnr.li/BT1mH>

베트남 베카멕스-빈프억 공단에 해외 첫 생산거점을 마련
올해 안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탄소섬유, 유리섬유 프리프레그 등을 생산할 계획
베카멕스-빈프억 공단은 베트남 공단 및 신도시 개발 국영기업인 베카멕스가 개발 중인 남부지역 최대 규모 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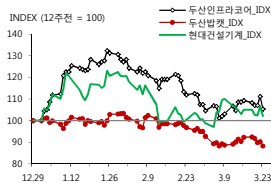
△ 동성화인텍, LNG 운반선용 신제품 탱크 선보여

<http://lnr.li/z1w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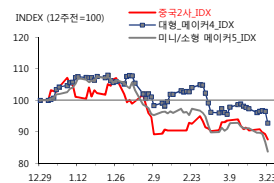
동성화인텍은 LNG 운반용 탱크 기술을 독점하는 프랑스의 GTT社가 개발한 ...
... 멤브레인형 LNG 연료 탱크 제품인 'LNG BRICK'의 런칭 행사를 동성화인텍 통영공장에서 진행
LNG BRICK은 기존보다 건조 기간을 줄이고 공간 효율성도 최대 50% 개선한 신제품 연료 탱크: 하나의 모듈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

건설기계

▶ 한국시장 성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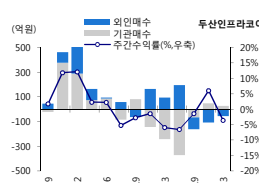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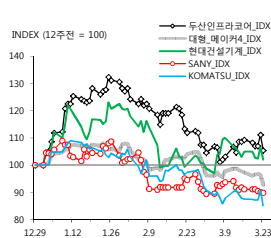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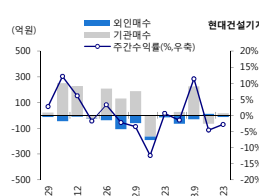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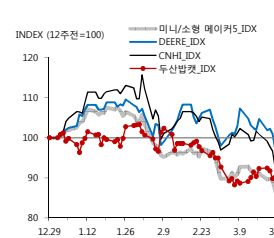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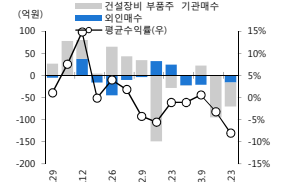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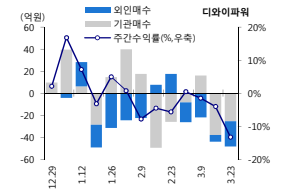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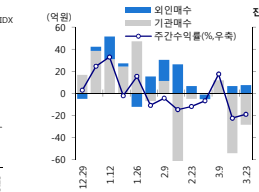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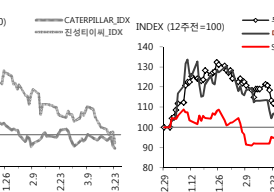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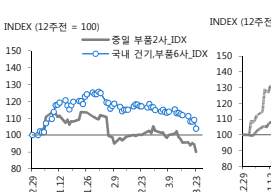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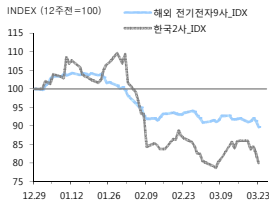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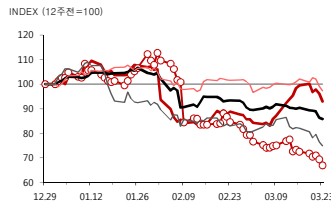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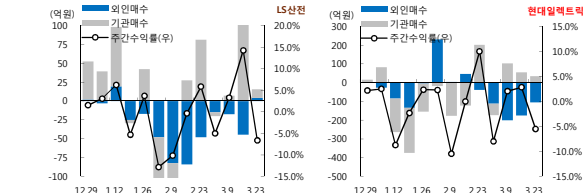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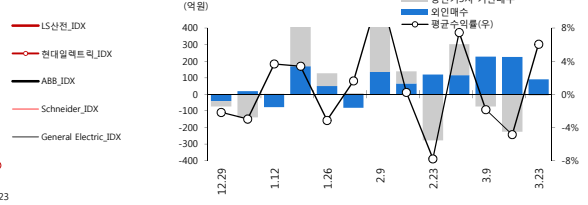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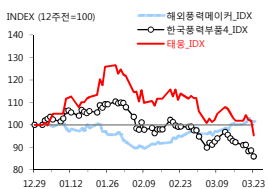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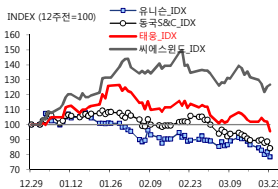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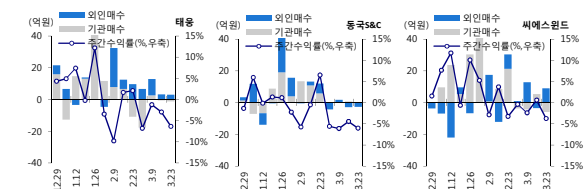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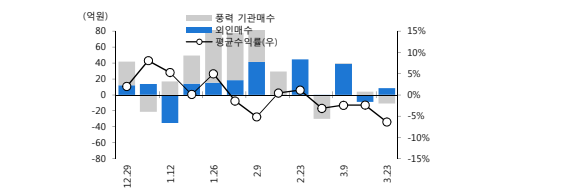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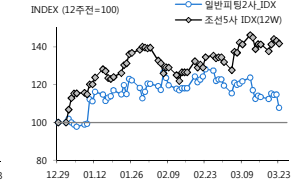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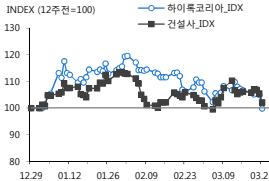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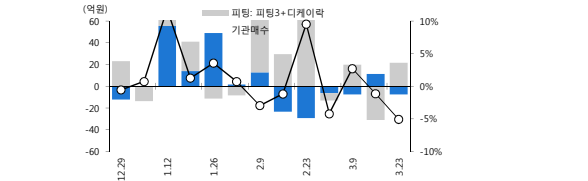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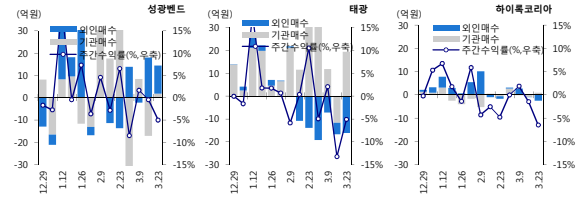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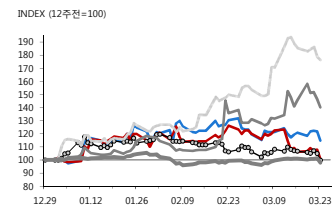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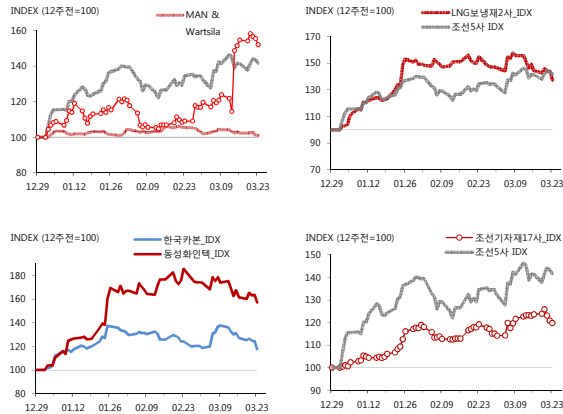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조선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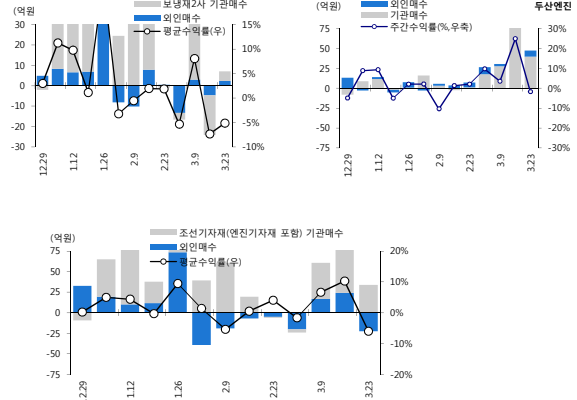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엔진3사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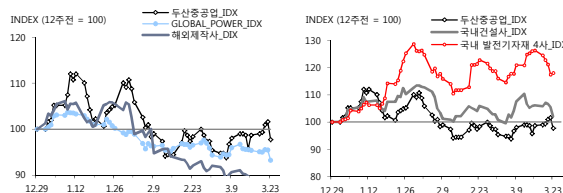
▶보냉제 2사

▶두산엔진



발전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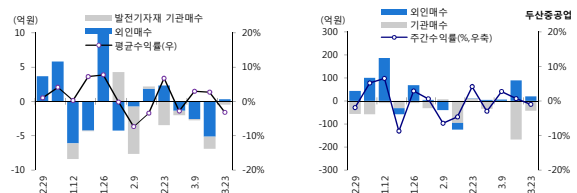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발전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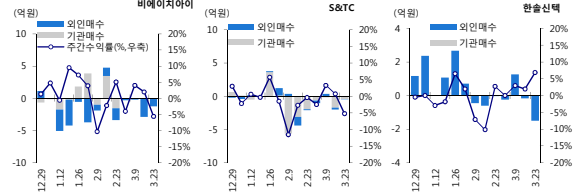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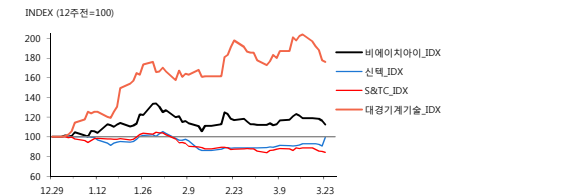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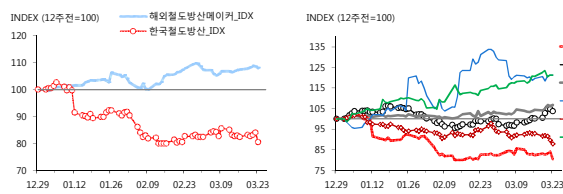
주식) 비에이치아이, S&TC,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텔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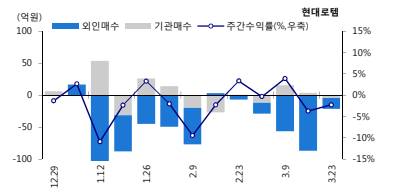
철도/승강기

▶철도 vs Global Peer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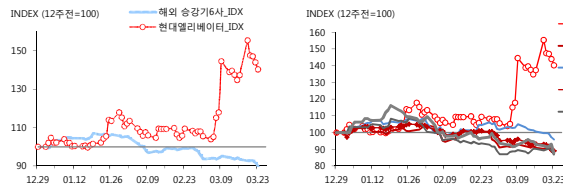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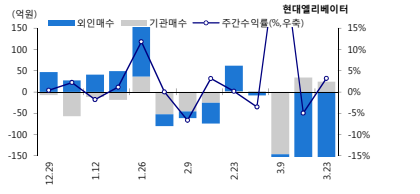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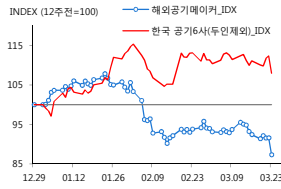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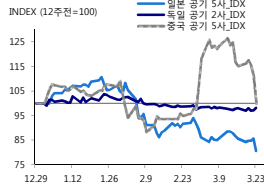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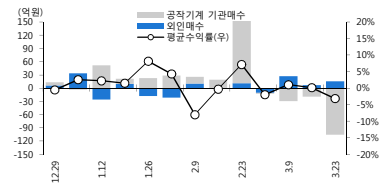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12-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1 %	6.9 %	-